

취·창업에서 정책 참여까지...순천시 '청년 지원' 눈길

각 위원회 청년비율 20%로 상향...하반기 74곳 20% 충족 청년센터, 지난해 이용객 1만1000명 자격증 교육·면접 지원 창업연당, 성장주기별 맞춤 지원 입주 12개 기업 정상 궤도

순천시가 청년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고 취·창업을 돕는 거점 기관을 활성화하면서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26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는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를 청년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지역 18-45세 청년은 모두 9만4000명으로, 전체의 36.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순천시는 시민 5명 중 2명꼴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청년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순천시 위원회 200개 가운데 청년위원이 20% 이상인 위원회는 7곳에서 이달 현재 50곳으로 늘었다.

올해 하반기까지 청년위원 20% 비율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74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주요 정책 결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단(인재풀) 170명을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 강사와 자문단, 기자단 등

으로 활동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순천 청년의 취·창업을 돕는 거점 공간은 '순천시 청년센터'와 '창업연당'이 대표적이다.

청년센터는 지난 2018년 6월 순천문화재단 공간에 5억원을 들여 새로 단장한 뒤 등지를 들었다.

지역 청년들의 소통 공간이 된 청년센터는 지역 소멸과 취업난에 대응하기 위한 취업 지원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과 자기소개서 상담 등을 제공한다. 면접 불합입을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거나 이력서에 불일치 명사진을 찍어주기도 한다.

하루 평균 50-70명이 찾는 청년센터는 지난해 이용객이 1만1000명에 달했다. 올해 교육과 행사를 늘린 청년센터는 연간 방문객이 1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해 2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청년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소모 행사를 진행한다.

센터의 청년지원사업은 '생활안정' '자신형성'



순천시가 지난 3월 연 청년창업스쿨 행사에서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전담 멘토로부터 창업을 위한 상담을 받고 있다. <순천시 제공>

'문화복지' '청년공동체 역량 강화' 등 4가지로 크게 나뉜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공동체 지원은 올해 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 진입'과 '성장', '프로젝트팀' 등 단계를 나눠 각각 25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창업 지원시설 '창업연당' (풍덕동)은 지난 3년간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직업 체제로 전환했다.

이곳에는 12개 청년 기업들이 입주해 사업을 안정 궤도에 놓고 있다. 이 시설은 창업 특강과 상

담, 교류 행사 등을 열어 창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한다.

청년창업 성장지원사업은 창업연당의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다. 또 매달 두 차례 '창업문당'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 창업에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창업연당은 앞으로 청년의 창업 수요를 분석해 성장주기별 맞춤 지원을 하고, 창업 자문단·전문관 제도를 운용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4년간 월 1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거나 청년 취업자에게 1년간 월 20만원까지의 주거비를 주고 있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는 최장 3년 월 25만원까지 주택구매용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청년 부부에 2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준다.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원을 모으면 순천시가 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과 19-28세 청년에게 연 25만원 상당 포인트를 주는 '청년문화복지카드' 등도 청년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도현 순천시 청년지원팀장은 "청년센터 등 청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 청년 취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5일시장·중마시장 온라인 배송 체계 구축 나선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의결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이 온라인 배송 체계를 다져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광양시는 지난 24일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추진협의회'를 열어 광양5일시장·중마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1차년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양 전통시장의 근거리 택배와 온라인 쇼핑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광양5일시장과 중마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구성과 온라인 상품 발굴, 홍보, 배송센터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협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양시, 상인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시장별로 1차년도 추진 사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논의했다.

광양5일시장은 영업 점포 중 30% 이상 온라인 입점과 매출액 30% 증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광양시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추진협의회'가 광양5일시장·중마시장에 관한 올해 1차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1차년도 사업으로 근거리 배송, 온라인 상품 판매를 위한 배송 인프라 구축, 상품 개발, 홍보 등을 추진한다.

중마시장은 '놀러 와요 장터' 온라인 입점 경험을 살려 매출액 30% 증가와 고객 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협동조합 설립과 배송 기반 시설 구축, 오픈마켓(개방형 시장) 입점 등을 추진한다.

허정량 광양시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추진협의회 위원장(투자경제과장)은 "이번 사업과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등이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물 확산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 다음 달 5일 창립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가 다음 달 5일 창립한다.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지회장 이충재)는 이날 오후 2시 광양읍 CGV 광양J.F.스퀘어점에서 창립 기념식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김대중재단 집행부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1부 창립 기념식과 2부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상영으로 구성된다.

창립 기념식에서는 내빈 소개, 축사, 지회장 인사·집행부 소개 등을 진행한다.

축사 영상에는 배기진 김대중재단 사무총장, 박지원·권영엽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 9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이 출연한다.



이충재 지회장

2부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이 상영된다. 지난 1월 개봉한 이 영화는 김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 업적을 풀어냈다.

이충재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 지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김대중재단 광양시지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만의 차별화된 '시그니처 티 메뉴 만들기' 인기

카페 운영자 등 20여명 대상 교육 7월2일 농기센터서 메뉴 품평회

보성 전통차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그니처 티 메뉴 개발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가공식품실에서 지역 카페나 차 체험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시그니처 티 메뉴 개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성 차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객 취향에 맞는 티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이론교육, 음료와 차 음식(티 푸드)을 개발하는 실습교육, 서울지역 유명 찻집(티룸)을 방문하는 현장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교육은 서울 마포구 티 코스 체험(전문업체: 코코시이나, 커차그), 티 메뉴 디자인과 브랜딩, 디저트와 차의 조화, 추세에 맞는 차 음료 개발, 티 페어링 메뉴 품평회 등이다.

해당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유기농 보성 말차를 베이스로 한 말차 아포가토, 말차토니,



시그니처 티 메뉴 개발 교육 참가자들이 서울 마포구 커차그 티룸에서 차와 디저트의 조화(티 페어링) 코스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블렌딩 티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료와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쌀 다식, 호떡, 개성주약, 양갱 등의 차 음식(티 푸드)을 만들었다.

'티 페어링 메뉴 품평회'는 7월 2일 오후 2시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며, 계절과 주제에 맞춰 보성 차의 특별함을 담은 티 페어링 코스를

만나 볼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기존 메뉴의 질과 비주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티 메뉴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비결을 배우게 됐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은택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1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 김순호 군수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1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

구례군은 지난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1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 감시단은 고령화에 따른 세대별, 분야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공개 모집과 읍·면 추천을 통해 2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2년 동안 고령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활동한다.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시 활동도 한다.

발대식에 이어 이날 이흥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원장이 강사로 나서 구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과 이해, 모니터단 활동 방향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르신은 물론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구례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어르신 건강관리' 참가자 150명 모집

65세 이상 주민 대상 선착순

고흥군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가자를 선착순 150명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2024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만성질환을 앓거나 식생활과 운동 습관 교정이 필요한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모바일 건강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실시간 건강관리를 돕는다.

고흥군 보건소는 참가자를 선착순 150명 모집한 뒤, 다음 달부터 기본건강조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6개월간 전문 인력으로부터 비대면

건강상담을 받고, 맞춤형 건강정보를 받는다. 때로는 주어진 임무(건강 미션)를 수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 질환 상태에 따라 스마트기기(블루투스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지급한다. 매일 각 기기로 측정된 혈압, 혈당, 활동량 등 개인별 건강 상태가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에 기록된다. 기록된 자료는 고흥군 보건소로 즉각 전송된다. 고흥군 보건소는 대상자의 이상 증상이 감지되거나, 1주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우선 확인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즉시 확인하게 된다.

단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1~5등급),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 자가측정기기 지원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330세대 모집

여수시가 오는 7월1일부터 12일까지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330세대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보호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문수, 여천부선, 미평 등 3곳에 마련됐다.

이달 14일 기준으로 여수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별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있다. 입주자격 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

하지 않는 대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여수문수주공 영구임대주택 12평(전용면적 26㎡) 1·2순위 200가구 ▲여천부선주공 1단지 12평(전용면적 26㎡) 1순위 50가구, 13평(전용면적 31㎡) 30가구, 1순위 총 80가구 ▲미평주공 1단지 12평(전용면적 26㎡) 1순위 50가구이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